

제21대 대선 이재명 후보 직속 모두의나라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즉시	배포일시	2025년 5월 19일
위원장	고영인	담당자	상근실무자 이진옥 팀장 (010-3906-2561)

이재명 후보직속 ‘모두의나라위원회’ 정책으로 실천하는 민주당 원팀!

- 대학등록금 후불제, 비정규직 안식년제, 선거제도 개혁 등 김동연 지사 경선공약 제안
- “모두의나라를 구체화한 정책은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열쇠”

지역순회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제21대 대선 이재명 후보 직속 모두의나라위원회 (위원장 고영인, 이하 위원회)가 정책행보를 시작했다. 고영인 위원장은 오늘(19일) 오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에게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출범회의에서 활동계획을 밝히며 ‘정책 캠페인을 통해 김 지사의 정책 공약을 이재명 후보의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고 전한 바 있다. 오늘 일정을 통해 조직 뿐만 아니라 정책측면에서도 민주당 원팀 실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 지사는 4월 경선에서 3대 권력기관(기재부, 검찰, 대통령실) 기득권깨기, 5대 빅딜(기회경제, 기후경제, 돌봄경제, 지역균형, 세금제정), 등록금 후불제, 비정규직 청년 노동시간 저축계좌 도입, 모병제 완전전환, 10대 기업도시 건설 및 기업도시 연계 10개 거점대학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이 오늘 전달한 정책 제안서에는 김동연 지사가 경선 당시 내건 핵심공약을 담고 있다. ▲기득권 깨기(로펌과 고위공직자 간 회전문 채용금지, 판·검사 정치진출 제한, 공무원 민간 개방형·공모형 채용 확대) ▲ 선거제, 정당개혁을 통한 양당 독점구조 타파 ▲ 코로나19 관련 부채탕감 등 기회경제빅딜 ▲ 간병국가책임제를 골자로 한 돌봄경제 ▲ 기후경제 빅딜(석탄발전소 폐쇄, 기후경제부 신설 등 기후경제 거버넌스 구축) ▲ 비정규직 안식년제 (7년 일한 후 6개월 유급휴가) ▲ 대학등록금 후불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무이자 전환) ▲베이비부머 일자리 100만개 창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위원장은 윤호중 본부장에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선과정에서 제안한 정책과제 중 이재명 후보의 비전과 부합하는 정책을 추려 실천가능성을 높였다. 이번 선거과정 뿐만 아니라 이후

4기 민주정부 수립 후 반영해주면 좋겠다” 고 당부하며 간병국가 책임제, 베이비부머 일자리 100만개 창출, 등록금 후불제, 비정규직 청년 노동시간 저축계좌 도입 등을 설명했다.

윤호중 총괄본부장은 “이 후보가 수락연설에서 밝혔듯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이다. 경선과정에서 제시한 김 지사의 핵심공약을 더해 이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에서 협력하겠다” 고 화답했다. (끝)

-행사사진 별첨-



